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7493.18	코스닥	1129.82
	(-488.23)		(-61.27)
금리	3.766	환율	1497.50
	(+0.112)		(+6.50)

# metro® 경제



명품 아니면 1000원 생필품 'K자형 소비' 고착화 04

## 국가 위기 된 삼전 파업... 政, 긴급조정권 검토

### 8000 찍은 코스피에 추가상승 vs 차익 실현 연금 자산배분도 관심

**오늘 삼성전자 노사 최후담판**  
이재용 회장 “삼성, 멈춰선 안돼 우리는 한가족, 최선 다해보자”  
김민석 총리 “하루에 1조 손해 파업시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



**北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조의 올해 임단협 '총파업 불모'가 단순한 대기업 노사갈등 상황을 넘어 한국 경제 근간을 흔들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18일 열릴 노사간 대화자리는 K-산업은 물론 국민 경제의 부침,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노사 모두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받아들여 타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긴급조정 명령 등 최고수준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며, 총파업 전 노사가 마주 앉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정부와 사측의 거듭된 요청을 노조측이 수용해 닷새 만에 회의가 열린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속에서 삼성전자 사측은 15일 대국민사과문을 낸데 이어 “노조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노조를 찾았다.  
이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삼성이 멈춰선 안 된다”고 호소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강조하며 노조의 협력을 호소했다. 삼성전자가 처한 사상 초유의 위기가 경영진과 노조의 탓만이 아니며 책임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7거래일 만에 8000선(장 중)을 찍었다. 코스피가 최대 1만2000(현대차증권), 1만(JP모건)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증권가에서는 증시를 밀어올릴 실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82포인트(0.06%) 내린 7493.18로 장을 마쳤다. 장중 8046.78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하지만 각종 악재와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으로 7500선 아래로 밀렸다.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은 한국증시가 각종 악재를 이겨낼 지에 쏠린다.  
시장 불안은 차츰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고유가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국제 금리가 올랐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제 금리는 0.112%포인트 상승(채권 가격 하락)한 연 3.766%에 마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30년물 국제 금리는 5.12%까지 뛰었다.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도 0.12%p 오른 4.58%로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파업 사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을 계기로 노사 모두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

### m-커버스토리

## ‘성과급 제도화’ 요구, 조선·車 등 산업계 전반 확산

**원·하청까지 ‘일파만파’**  
소액주주 ‘배당권 침해’ 대응 예고  
노사 2사 구도 → 3각 충돌로 확산  
삼성전자발 성과급 갈등을 시발점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노동계의 제도화 요구에 맞서 소액주주단체들이 배당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노사 2사 구도가 주주 가세로 3각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전선 확대까지 우려되며 산업계 전반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통해 회사가 초과이익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금액의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 자체 추산의 반도체부문(DS) 올해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선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주주배당액 11조1000억원의 3배를 넘어선다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37조7000억원도 초과하는 규모다.  
사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신설해 경쟁사 이상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총파업 강행 시 하루 1조원씩 최대 약 30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필수인력 유지와 유회 생산 등 변수가 많아 단 순 계산이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그리고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매 순간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사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 달리 24시간 쉼 없이 공정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이므로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저희 사측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노동조합을 한 가족이자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측 일동**  
대표이사 부회장 전영현, 대표이사 사장 노태문, 김수목, 김용관, 김우준, 김원경, 남석우, 마우로 포르치니, 박승희, 박용인, 박홍근, 백수현, 송재혁, 용석우, 윤장현, 이원진, 최원준, 한진만

한국경제 경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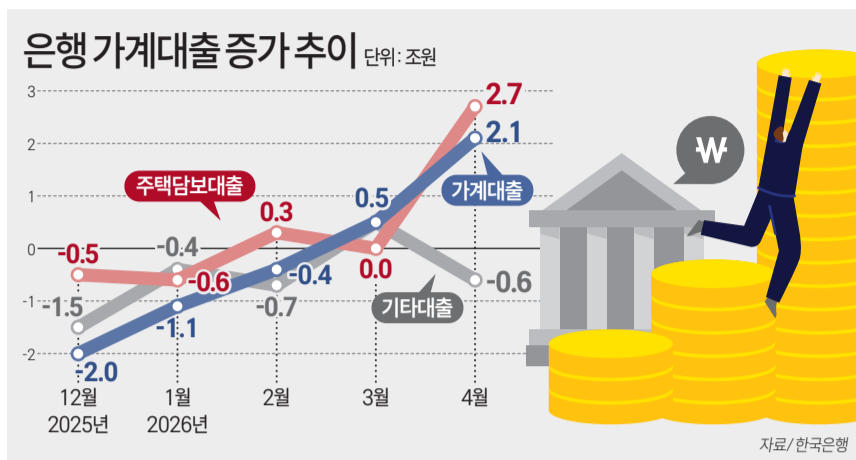
# 주담대·단기 자금조달 증가... 가계·기업 대출 12.8조 ↑

한은, 4월 금융시장 동향 발표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폭 커져  
가계, 주택거래 증도금 등 영향  
기업, 배당금·회사채 상환 반영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증가폭을 키웠다.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와 증도금 납부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담대가 2조7000억원 늘었고, 기업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수요 등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5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다. 4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



보대출이다. 주담대는 지난 3월 보합 수준에 머물렀지만 4월에는 2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한 데다 증도금 납부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개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인 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대출 증가폭도 커졌다. 4월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규모(7조8000억원)를 웃돌았다. 4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97조7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분기 말 일시상환분이 다시 취급된

데다 배당금 지급과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가 반영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늘었다. 주요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가 더해졌다.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은 회사채에서 단기자금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회사채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조9000억원 순상환됐다. 반면 CP·단기사채는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발행과 회사채 상환 목적 발행 등으로 4조9000억원 순발행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4월 말 6599였던 코스피는 지난 14일 7981까지 오르며 8000선에 근접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4월 중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하

락했다가 하순 이후 다시 반등했다. 중동 협상 지연과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신 흐름은 은행과 자산운용사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4월 은행 수신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유출로 18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99조6000억원 급증했다. 주식형펀드가 국내외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이익 확대와 신규 자금 유입으로 55조7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도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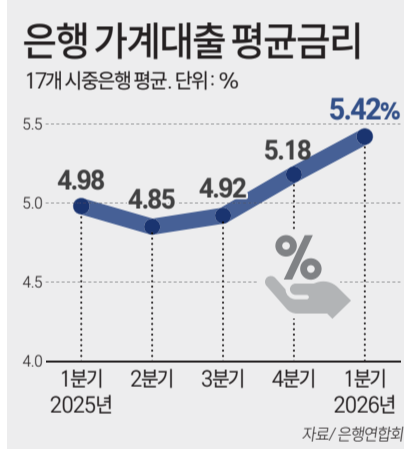
## 시장금리 지속 상승... 다중채무자 등 리스크 확산

가계·자영업자 금리상승 압박  
"연체율 상승·상환능력 악화 위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늘면서 금리상승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선 뒤 전반적으로 증가흐름을 이어오다 2023년 1764조4000억원에서



2024년 1분기말까지 숨고르기를 한 뒤 이후 7개 분기 연속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만큼 시장금리도 올랐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

에 따르면 올해 3월 1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42%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025년 ▲1분기 4.98% ▲2분기 4.85% ▲3분기 4.92% ▲4분기 5.18%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오를 때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부담 증가액은 평균 16만3000원이다. 금리가 0.50%p오르면 6조4000억원, 0.75%p오르면 9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번 추산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 약 64.5%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자영업자 사정은 더 팍팍하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기업대출 성격이 혼

재돼 있어 금리 상승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사결과 실제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고, 차주 1인당 연간 부담도 평균 55만원 증가했다. 금리가 0.50%p 오르면 부담은 3조5000억원, 0.75%p 상승 시에는 5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8%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매출 회복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데다,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도 남아 있어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의 압박을 가계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금리가 0.25%p 뛰면 이자 부담이 1조1000억원 늘고, 1인당 연간 부담은 64만원 증가한다. 0.50%p 상승 시 2조1억원, 0.75%p 상승 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사실상 자영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6명꼴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업종별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 연체율 상승과 상환능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 금통위, 금리 경로 재조정 가능성... 점도표 변화 관심집중

인하 종료-인상 경계선 첫 신호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관전 포인트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성장률 전망은 개선된 반면 물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경로 전망이 얼마나 위쪽으로 이동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연 2.50%)가 동결되더라도 점도표가 이전보다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경로 전망이 상향되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점도표는 금통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점으로 제시하는 통화정책 소통 수단이다. 시장은 개별 점보다 전체 분포와 평균값, 중위값, 상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점도표 상향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유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5월 금통위까지 확인이 된다면 2월 점도표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4월 이후 상황에 대해 "경기는 2.0%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는 2.2%보다 더 높아질 상황"이라며 "금리를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신성환 전 금통위원의 발언도 같은 흐름에 있다. 신 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물가 압력과 미래 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점도표 상향론의 배경에는 성장과 물가 조합의 변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

I)는 지난 13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7%로 상향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동시에 올라간 셈이다.

환율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 충격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90원 안팎까지 올라갔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물가 부담이 커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이는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5월 금통위의 핵심은 기준금리 동결 여부보다 금통위원들의 다음 금리 경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월 점도표가 인하 가능성을 남긴 표였다면, 5월 점도표는 인하 종료와 인상 가능성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첫 공식 신호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metro

## 업계 "이번 사태, 제조업 전체 노사관계 영향"

>> 1면 '국가 위기 된 삼전...서 계속

이번 사태의 관건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DS 부문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현행 '연봉 50%'인 지급 상한선을 폐지에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고수하되,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할 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모두 18일 진행되는 자리의 무게를 결

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 정지될 경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만으로 파업을 막긴 어렵고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제시하고 노조는 파업으로 미칠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국가경제적 파장을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 노사관계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 ‘영업익 N% 성과급’ 해외선 이례적... 글로벌 기업 RSU 중심

(양도제한조건부주식)

## 보상체계 개편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협상으로 고정하는 성과급 방식은 해외 주요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반도체·테크 기업들은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이사회 중심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불붙은 ‘영업익의 N% 성과급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간별 상한 차등과 주식 기반 보상 확대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챗GPT가 편집한 엔비디아,마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엔비디아, 현금 대신 RSU 보상 추가 상승 직위 보상 확대로 연결 TSMC, 사외이사위 성과급 산정 영업익 고정비율 방식과 차이 뚜렷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구조는 국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엔비디아는 현금 성과급 대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주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 RSU는 일정 기간 재직이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인센티브 제도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약 2억2500만원) 상당의 RSU를 지급했다.

주가 상승이 곧 보상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직원과 주주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 인텔은 현금 성과급을 지급

하더라도 회사 실적, 수익성, 전략 과제 달성 여부, 개인 성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 고정하는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TSMC는 성과급 규모를 노사 협상이 아닌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산정한다. 지난 2025년 영업이익의 10.6% 수준을 성과급으로 책정했는데 창업 이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며 이사회 중심의 보상 체계를 정착시킨 결과다. TSMC가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은 직원 1인당 약 8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뢰에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얼마 주느냐’보다 ‘구성원 납득’ 중요 국내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고정 비율 방식 대신 구간별 상한 차등 적용과 주식 기반 보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연봉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이익 규모에 따라 단계별 구간으로 나눠 설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영학계 전문가는 “영업이익의 15%를 통째로 고정하는 방식보다 이익 규모에 따라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구조가 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기 현금 성과급 대신 RSU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RSU가 고성공자와 경영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회사 성장에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익이 날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실 상황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배분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일 현행 EVA 기반 성과급 산정 방식을 즉시 폐기하고 RSU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 단체는 “사장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실리코밸리 주식 보상 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보상 체계 전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구간별 상한 차등 대안으로 떠올라 일반 직원 RSU 확대 필요성 커져 주주소송·긴급조정권 검토도 변수 노사정 합의 틀 마련 필요성 커져

초과이익 일부를 공익 기금 형태로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기업이 번 이익을 주주·직원에게만 나누지 않고 별도 공익 재원으로 운용한 미국 록펠러재단·포드재단 사례를 참고해 노사 합의 기반의 장기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한 지분 보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강한 데다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기업 특성상 해외 투자자들이 낮설게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 공평 대우 규정에 법적 분쟁 가능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근거는 개정 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사회 결의가 소액주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해진 만큼 성과급 협상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와 함께 주주 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 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갈등이 전 산업계 표준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남영 기자 metro koogija\_tea@metroseoul.co.kr

## 성과급 갈등, 노사 넘어 주주 충돌로 확산

>> 1면 ‘성과급 제도화 요구...’서 계속

노동계는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낸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기존 OPI 방식이 EVA 기반으로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구성원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 핵심 불만이다.

노사 갈등은 주주단체 가세로 3각 충돌 양상으로 변했다.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노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불법 파업 강행 또는 사측의 불합리한 합의 시 손해배상 청구와 주주대표소송을 경고했다.

이처럼 성과급 갈등이 ‘직원에게 많

이 주면 주주가 손해’라는 제로섬(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구도) 프레임으로 굳어지면서 노사 충돌이 노·사·주주 3자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을 근거로 한 경고도 나온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만큼 사측이 노조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경영진이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전선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을 올해 임단협안건으로 확정했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요구하며 교섭이 결렬됐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기아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방산 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파업이 한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국의 반사이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편, 18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노사정 합의 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갈등이 전 산업계 표준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구남영 기자



# 명품 아니면 1000원 생필품... 유통가 'K자형 소비' 고착화

데이터처 '3월 소매판매액통계'  
음식료품·비내구재 판매 줄어

백화점, 외국인 겨냥 콘텐츠 강화  
마트, 고물가 대응 가성비 시리즈  
편의점, 캐릭터IP·팬덤 문화 결합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 지표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실제 소비 흐름은 백화점·온라인·편의점 등 특정 채널로 집중되고, 대형마트와 생활밀착형 유통 채널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K자형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1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매판매액통계'상 지난달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59조 17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했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민생 경제의 가능자인 음식료품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으며,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 비내구재 판매도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필수적인 먹거리 지출마저 줄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소매 시장은 사치재 채널의 성장성은 견고해지는 반면 필수소비재는 오히려 하락하는 전형적인 'K자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필수소비재는 경기 민감도가 낮다는 인식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 채널별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고가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206만 명으로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패션, 잡화, 해외 유명 브랜드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매

출이 전년 대비 14.7% 급증했다. 또 편의성의 앞세운 온라인 매출이 8.1% 상승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고, 온라인 유통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6%까지 치솟았다. 편의점 업계 매출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며 2025년 7월 이래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요 유통업계 매출 중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세 번째로 높다.

반면 서민들의 주요 장보기 공간인 대형마트는 판매액이 11.9% 급감하고 불변지수 또한 12.5%나 하락하며 전체 업체 중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채널별 격차가 벌어지자 각 업계는 타겟 고객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 1분기 호실적을 거둔 백화점 업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더 헤리티지'와 연계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롯데백화점은 본점에서 '2026 롯데타운 명동 페스티벌'을 열고 K-방탈출 게임을 접목해 본점을 글로벌 K-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통합 멤버십 'H포인트 글로벌'의 데이터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활용해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과 차별화된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마트 업계는 고물가 시대에 대응한 초저가 전략과 단독 상품 출시로 장바구니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마트는 990원 초저가 막걸리를 출시하고 5980원의 반전가격 불고기 샌드위치 등 가성비를 극대화한 델리 시리즈를 선보여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롯데마트 역시 2500원짜리 초저가 '오늘 좋은 숨결통식빵'을 출시해 4주만에 15만 개를 판매하며 식사빵 매출을 전년 대비 50%나 끌어올렸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

형마트 최초로 '태국산 신선란' 4만 6000여 판을 들여와 완판시켰으며, 이어 '미국산 백색 신선란'을 추가 판매하며 계란값 안정을 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캐릭터 지적재산권(IP)과 팬덤 문화를 결합한 콘텐츠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CU는 포켓몬, 산리오 등 캐릭터 협업 완구 매출이 전년 대비 75.1%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구매층인 MZ세대의 팬덤 소비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GS25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암막 우양산을 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매출을 전년 대비 35.1%나 끌어올렸다. 이마트24는 아이돌 그룹 '싸이커스'의 음반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등 K-팝 팬덤의 접점을 활용해 점포 방문 수요를 확대하며 오프라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사업자별로 10% 중반에서 20% 중반 수준까지 확대되며 차별화된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낮은 한 자릿수(LSD)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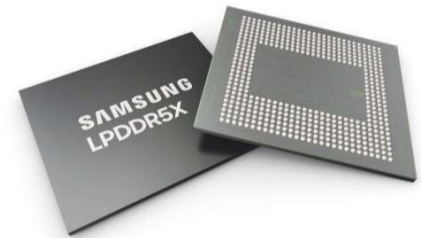
metro

## 中, HBM 틈새 노려 D램 시장 침투... 삼성·SK, 기술 방어전

YMTC·CXMT, 가파른 성장세 보여  
범용 서버·PC 시장 경쟁력 확보  
삼성·SK, 차세대 D램 공전 전환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고수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DDR5 기반 제품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비워진 범용 D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빅2는 차세대 D램 개발과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앞세워 기술 초격차 방어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가 AI 수요 폭증과 공급부족을 기회 삼아 D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CXMT는 중국에서 유일



삼성전자 LPDDR5X.

/삼성전자

하게 DDR5 규격의 D램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관련 제품을 정식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5% 수준까지 기

록했다고 밝혔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D램 시장 특유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공급·수요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강자와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CXMT는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320억 8000만위안(약 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7.8% 성장했다. CXMT가 공식 출시한 DDR5 포트폴리오는 최대 8000Mbps 속도와 16Gb·24Gb 밀도를 지원한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32Gb 제품과는

한 세대 정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범용 서버와 PC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준의 수율과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첨단 공정 기술과 대규모 양산 경험, 글로벌 고객사 인증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며 기술 초격차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나노급 6세대(1c) 미세공정을 적용한 FOA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 3월 같은 공정 기반의 16Gb 저전력 D램 개발을 완료했다.

차세대 D램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설비 투자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핵심 기지인 평택 P4 공장의 D램 투자 일정을 앞당기며 장비 반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올해 상반기 페이즈3(Ph3) 라인에 이어 하반기에는 Ph4 라인까지 전공정 장비 셋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와 용인 Y1 랩 투자를 가속하며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내년 D램 관련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D램 시장은 결국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라며 "중국 업체들의 DDR5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글로벌 PC 업체들과 공급 테스트가 본격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북미 전력망 슈퍼사이클...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 수주 경쟁

양 사, 수주잔고·신규수주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시장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변압기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능력과 납기 대응력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약 5년치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도 장기 물량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 수주잔고와 신규 수주 모두 북미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17억 9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주잔고는 78억 8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북미 물량은 54억 5600만달러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4조 1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8%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의 약 77%가 북미향 물량이었다.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투자 확대, 노후 송전망 교체가 동시에 늘면서 일부 초고압 변압기 납기가 3~5년에 달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알라바마 생산법인과 애틀랜타 판매법인을 기반으로 북미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

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송배전 전시회 'IEEE PEST&D 2026' 기간에는 미국 중부 지역 전력회사와 173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지역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멤피스 공장에는 4900만달러를 투자해 2026년까지 시험·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추가로 1억 5700만달러를 투입해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50% 이상 확대하는 3차 증설도 추진 중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신용융자 36.4조... 하락장 대비 움직임

>> 1면 '8000 찍은 코스피에...'서 계속

하락장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36조 4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공개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대 잔액도 170조 2727억 원에 달한다. 하락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외국인이 언제까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갈지도 변수다. 최근 7거래일 순매도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다. 7~15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27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도 중요한 변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8일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증시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올거예요, 더 원더풀한 인생이

## NH **올**원더풀

지금까지 잘 달려온 당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원더풀해질 수 있기를!  
금융 자산부터 건강 케어까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을 한 곳에 담아  
당신의 다음 인생을 더 믿음직스러운 혜택들,  
더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드립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미니 총선급’ 6·3 재보선, 민주 10곳 우세·국힘 추격

민주당, 지역구 13곳 수성 목표  
국민의힘, 최소 4곳 승리 노려  
부산북갑·평택을, ‘단일화’ 변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기존 지역구였던 13곳을 시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 4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는 총 4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은 ▲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14일 경기 평택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뉴스1

산 북갑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0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후보가 최근에 확정돼 여론조사가 아직 발표된 게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자당 의원 지역구인 13곳(대구 달성군 제외한 나머지)을 당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에 더해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기 하남갑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일화 여부가 중요해진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도 여야 간 승자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일단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일어난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으며,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하정우 후보(39%)가 한동훈 후보(29%)를 10%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박민식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에게 밀렸다. 보수 진영 후보의 합산이 하 후보를 앞서지만,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평택을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

보가 각 정당에서 나온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24%)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내에 앞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0%다. 이곳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단일화에 선을 그어 있다. 이런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만일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7%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33%)를 14%p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때도 추 후보는 1100여 표 차로 이용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추 후보는 하남갑 대부분 지역에서 밀렸지만 신도시가 있는 감일동에서 이기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신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부산 북갑, 보수 갈등에 단일화 ‘안갯속’

박민식, 단일화 가능성에 선 그어  
野 지도부 “표 위한 단일화 부정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산 북갑 보궐선거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곳에 출마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선 데다 국민의힘은 필승 의지를 다지며 해당 지역에서 연달아 두 번 당선된 바 있던 박민식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나서면서,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단일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는 전날(16일) 부산 북구 만덕동 배양근린공원에서 열린 행사 후 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 여러 번 당 지도부가 얘기하더라도 저의 뜻은 확고하다”며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 또는 유아독존 정치로는 보수 재건은 고사하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며 날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산 북갑 보궐선거다. 사진은 하정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뉴스1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일화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합의 길도, 승리의 길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경향을 살펴보면 한 후보가 박 후보를 어느 정도 앞서서 결과가 나왔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초반에 박 후보에게 밀리던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등으로 올라섰다. 이는 한 후보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거전이 지속될수록 큰 정당 소속이자 지역 기반이 있는 박 후보가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계다가 한 후보와 박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완벽히 결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자구도가 된다 면 한 후보의 지지층이 박 후보를 찍거나, 박 후보의 지지층이 한 후보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양자 대결이 될 경우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서예진 기자

## 7829명 후보 등록… 21일부터 선거운동

6·3 지선, 국회의원 재보선  
거리 유세·후보자 간 토론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모두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인 전날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선관위가 지난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총 7829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는 총 1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간 토론회도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연다. 만일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28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잠잠기(블랙아웃 기간)’가 시작된다. /서예진 기자

## 한일 정상, 4개월 만에 안동서 재회

내일 국빈에 준하는 예우 제공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양국 정상 ‘셔틀 외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 공항에 도착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한다.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나라현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초 예정된 ‘호텔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을 올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 바 있다.

이후 양 정장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신속한 수사 개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돼 전날(16일)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며 “테러 모의로 인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가입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정 대표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 “서울 어디든 접근·교통 편리… ‘분양가 27억’ 완판 예상”

## 부동산 현장 르포

### 노량진 ‘아크로 리버스카이’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뉴타운 한복판에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난 15일 문을 연 ‘아크로 리버스카이’ 견본주택에는 개관 직후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요자들은 유니트 내부 팬트리와 드레스룸, 주방 동선 등을 꼼꼼히 둘러보거나 청약 상담 순서를 기다렸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견본주택은 개관 첫 주 일요일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그다음 주 주말 예약 역시 대부분 차다는 게 현장 관계자 설명이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8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2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은 36㎡부터 140㎡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다.

단지는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을 걸어서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고속터미널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다. 영화초와 맞닿은 ‘초품아’ 입지에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송의여중, 송의여고 등이 가깝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59㎡ A타입과 84㎡ B타입 유니트가 마련됐다.

59㎡ A 타입은 소형 평형임에도 공간을



‘아크로리버스카이’ 견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2주간 견본주택 예약 대부분 마감 1·9호선 노량진, 대방역 더블역세권 59㎡ A타입, 현관 옆 팬트리 마련 84㎡ B타입, 수납특화·개방감 강조

비교적 넓게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화이트·베이지 계열의 마감재를 적용해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관 옆에는 별도의 팬트리 마련돼 생활용품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방에는 화장대와 드레스룸을 기본 제공해 수납 기능을 강화했다.

현관 신발장은 오픈형으로 설계했다. 차키나 카드지갑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둘 수 있는 형태다. 선반 없이 신발장만으로 구성된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전용 84㎡ B타입 유니트는 수납 특화 설계와 개방감을 강조한 구조가 눈길을 끌었다. 다이닝 공간에는 2면 개방형 창호를 적용해 채광과 환기성을 높였다. 우물 천장으로 고급스러움도 더했다.

특히 복도형 팬트리를 활용한 독특한 구조를 향한 관심이 높았다. 거실 복도와 주방 양쪽을 따라 긴 팬트리가 이어지는 형태로 설계돼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을 줬다. 방문객들은 팬트리를 통과해 복도와 주방 사이를 오가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입지와 교통 편의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며 여의도로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A씨는 “남편은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노량진이면 여의도와 강남 모두 이동이 편한 위치”라며 “전용 59㎡ 타입 청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B씨는 “서



견본주택 84㎡ B타입 주방과 복도를 잇는 팬트리. /성채리 인턴기자

울 어디든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 조망은 단지 내 일부 고층 세대에서 측면창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채광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세대를 배치하면서 정면 조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크로리버스카이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7733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타입 최고 분양가는 전용 36㎡ 11억6370만원, 59㎡ 21억5280만원, 84㎡ 27억958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단지였던 ‘리클라체자이드파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7601만원, 전용 84㎡ 최고가가 25억8510만원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리클라체자이드파인’이 평당 7600만원 수준에도 분양에 성공했다”며 이번 청약 역시 수요가 탄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노량진 6구역 재개발한 클라체자이드파인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평균 26.9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단지가 흥행에 성공하며 일대 신규 분양의 기조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청약 일정이 가까이 다가온 만큼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분양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대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국평 기준 27억대까지 치솟은 분양가에 대해 “처음에는 21억~22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만 흥행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반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완판될 것”이라며 “6구역이 흥행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20~24일이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아크로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처벌 강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담대 전월비 2배 상승 ‘별도관리’

금융당국이 운전자금대출을 활용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주담대 별도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도 재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진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발표 이후 개최된 첫 점검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실적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3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체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3월(3조원)과 비교해 2배 가깝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가 2조7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지난 3월(-2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을 빠르게 키웠다. 반면, 제2금융권(3조원~2조8000억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의 총 규모는 지난 3월 2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신용대출이 4월에는 8000억원 감소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금융권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3월(-5000억원)과 비교해 4배에 달하는 감소 폭이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을 기록해 3월(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1조3000억원 증가를 기록하면서 2조8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책성 대출은 1000억원,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신진장 금융위 차무처장은 “올해 1~4월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

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남은 기간에도 전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현황 점검’의 중간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강남 3구 내 아파트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에 따른 점검과 함께, 금융사가 대출의 용도 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본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등 용도외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또한 각 금융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자체 점검 중으로, 점검 대상은 신규대출 및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대출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카드사, 단기자금 확대… 유동성 리스크 우려

### 여전체 금리 2년 반 만에 최고치

삼성, 1분기 단기성 자금 1.9조 발행 우리, 1.6조… 장기조달 잔액 감소

일부 카드사들이 1년 이하의 단기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단기 조달은 만기가 짧아 지속적인 차환이 필요해 시장 상황 악화 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삼성카드의 경영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카드의 단기사채·단기기업어음(CP) 발행액은 1조9470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3500억원)와 비교하면 약 4.6배(1조5970억원)나 증가했다.

단기 차입 규모가 늘면서 단기 자금 조달 비중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4.3%를 차지하던 단기사채·단기CP 비중은 지난 3월 8.9%로 확대됐다. 반면, 회사채·장기CP 비중은 75.4%에서 70.2%로 줄었다.

우리카드도 단기 조달액을 늘리고 있다. 우리카드의 단기 조달 차입금 잔액은 2023년 1조9860억원에서 2024년 1조1500억원으로 줄어들다 2025년 1조5300억원, 2026년 1분기 1조5600억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장기 조달 잔액은 2025년 10조2000억원에서 9조6800억원으로 떨어졌다.

단기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배경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여전체 평균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자금 조달 전략을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해 조달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실제 지난 12월 기준 여전체 3년물 신용등급 AA+ 평균 금리는 연 4.189%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3년 4.210%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반



Chat GPT가 생성한 카드사들 단기차입금 조달 확대 관련 이미지.

만에 최고치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카드사들이 단기성 자금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단기사채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7800억원→9월 말 2조4700억원→12월 말 3조8700억원까지 확대됐다. 전체 카드사의 단기사채 구성비 역시 같은 기간 4.52%에서 12.7%, 15.47%로 크게 늘었다.

각 사 단기사채 규모 비중으로는 우리카드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2.56%), 삼성카드(2.45%), 롯데카드(2.36%)가 그 뒤를 이었다. 단기사채는 카드사들이 자금 시장에서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기 1년 이하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문제는 단기 자금 조달 의존도가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카드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 조달 종류는 단기차입금”이라며 “발행 비중이 클 경우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

결제·정산·입금 등 연결 통합 실증

KB금융그룹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이니시스, 글로벌 레이더1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Kaia),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OpenAsset)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입금에 이르는 전 단계를 통합한 기술 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산, 해외 송금까지 금융서비스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통합 실증 사례다. 고객의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 정산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했다. KB금융은 디지털자산의 실생활 결제 모델 구현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생활 결제 모델은 커피전문점 홀리스(Hollys)의 오프라인 키오스크 결제를 통해 구현됐다. 소비자가 별도의 디지털 지갑 설치 없이 QR을 통해 결제하면 정산 단계에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해외송금 검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카이아의 온체인 유동성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 실제 은행 계좌까지 수취하는 과정이 구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형 그랜저, 하루만에 1만대 계약 AI 어시스턴트 등 신차급 변화 주효

현대차 출시 첫날 1만277대 계약  
첨단기능 대거 적용... 차별화 성공  
가격인상에도 최상위 트림 비중 높아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그랜저 미디어 데이 현장에 전시된 더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날 계약 1만대를 넘어서는 등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독보적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 세단으로 자리매김해온 그랜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형 그랜저의 가격이 이전 모델 대비 500만원 가장 인상됐지만 첨단 기능을 대거 적용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 세단 더 뉴그랜저는 지난 14일 출시 첫날 총 1만277대가 계약됐다. 그동안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신규 모델 가운데 2019년 출시된 6세대 그랜저(IG) 페이스리프트(1만7294대) 모델에 이은 기록이다.

이같은 수치는 소비 키워드가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 즉 가격 대비 만족도와 제품의 지속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0년 출시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도 출시 당시 '깡통' 모델이 7000만원에 육박해 가격 논란이 있었지만 기술과 품질 등을 만족시키며 출시 당시 첫날 1만

5000대, 둘째날 7000대 등 2일 동안 총 2만2000여대가 계약되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신형 그랜저는 내적 성장을 통한 신차급 변화를 이끌어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내·외장 디자인 전반에 큰 변화를 줬다. 여기에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기반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단순한 음성 제어를 넘어 운전자와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복잡한 지식 검색을 지원한다.

신형 그랜저를 선택한 소비자 58%는 가솔린 모델을 골랐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전체 계약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

치를 기록했다.

트림별로는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가 전체 계약 41%를 차지했다. 기존 그랜저의 캘리그래피 트림 비중(29%)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신형 그랜저에 탑재된 스마트 비전 루프의 경우 12.4% 고객 선택을 받으면서 수요가 몰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디자인과 상품성,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구독서비스 강화

관리·AS·케어 결합... 사업범위 확대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 제품 사업에서 단순 판매를 넘어 관리·AS·케어를 결합한 구독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가전 구독 사업에서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한 LG전자가 'SKS'와 'LG 시그니처'까지 구독 모델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SKS'와 'LG 시그니처'(만을 위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독 상품 컨설팅부터 제품 배송·설치·케어·AS까지 고객경험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453억8000만달러에서 오는 2030년 7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탁기 및 건조기 등 생활 밀착형 대형가전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장 성장세에 맞춰 LG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구독 모델 확대에 나섰다. SKS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의 편의성, 세련된 디자인을 더한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으로 이른 차별화된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는 SKS의 경우 ▲컬럼형 냉장고·냉동고·와인셀러 ▲엘



고객이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프리미엄 가전 구독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LG전자

음정수냉장고 ▲아일랜드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광파오븐 ▲스팀오븐 등 9개 모델로, LG 시그니처는 ▲워시콤보 ▲얼음정수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4도어 냉장고 ▲3도어 냉장고 ▲와인셀러 등 5개 모델로 운영된다.

프리미엄 구독은 집안 구조, 인테리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위해 LG 베스트샵, SKS 서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진행된다. 고객은 매장에서 제품의 디자인, 소재, 마감,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하고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상담해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가전 구독은 배송·설치부터 사용 중 케어, 사후관리까지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력, 숙련도 등을 고려해 종합 역량 최상위 전문 인력이 별도 교육을 거쳐 전담하게 된다.

프리미엄 제품의 가치를 더하도록 위생과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정기 방문 케어 서비스는 케어 매니저가 아닌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가 담당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K-방산, NATO 공략... 현지화·공동개발 포문

(북대서양조약기구)

## BSDA 2026

현대로템 무인차량·로봇 전면예  
LIG디펜스 고도별 방공솔루션 소개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기업 사업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내 방공·포병·무인체계 전력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까지 이어지며 관련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국내 방산업체들은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을 결합한 전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지난 13~15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동유럽·흑해 지역 방산 전시회 'BSDA 2026'에 총출동해 대대적인 수주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하드웨어 경쟁력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여내 우선주의가 강한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섰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종료되는 루마니아향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공급 사업을 발판으로 다층 방어체계 구축 등 후속 협력을 논의했다. 신궁-해군-천궁-II-L-SAM 등 고도별 방공 솔루션과 해상 무인전력을 선보이며, 루마니아 사업 확대에 맞춰 현지 사무소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피'와 무인소



지난 1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 'BSDA 2026'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로봇 등을 앞세워 전장 다변화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철도·수소 모빌리티 등 그룹 인프라를 결합한 패키지 제안에도 나섰다. 기아는 신형 픽업트럭 '타스만' 기반 군용 지휘차를 유럽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회 기간 무인지상차량(UGV)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시연을 마치고, 밀렘 로보틱스 및 루마니아 현지 법인과 UGV 공동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차륜형-궤도형 무인차량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 힘을 쓰는 것은 NATO와 EU가 형성한 방산 조달 구조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이다. 유럽은 여내 지출 환류 기조가 강하고, 표준·상호운용성 요구도 까다롭다.

다만 러·우 전쟁 이후 공중방어·포병·탄약·드론 분야의 전력 공백이 커지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실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NATO 유럽 회원국 무기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은 8.6%로, 미국에 이은 주요 공급국으로 올라섰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NATO의 표준 적용을 돕기 위해 정부도 외교적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NATO와 제2차 방산협약체를 열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와 탄약·우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한국 무기체계 표준 인증에 다소 소극적이던 NATO 역시 최근 협력 확대에 선화하는 분위기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협회 이사장은 "유럽 조달 구조를 넘어서려면 현지 생산, 가격 경쟁력, 상호운용성을 묶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하드웨어 공급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과 무인화 분야로도 기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한달새 4000명 이탈

일부 조합원 '파업 중단' 의견 제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이자 사내 첫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에서 최근 한 달 새 4000명 규모의 조합원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성과급 문제가 노사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면서, 생활가전·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평택 결의대회를 앞두고 7만5000명을 넘어섰던 조합원 수는 이날 기준 7만1625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조합 내부 균열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초기업노조의 과반 대표성 유지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탈퇴 움직임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됐다. 지난달 28일 하루 탈퇴 신청 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다음 날에는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도 DX 부문을 중심으로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DX 조합원들의 불만은 교섭 의제가 사실상 DS 부문 특별성과급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전사공동재원 활용이나 비반도체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초기업노조의 과반 노조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기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약 6만4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과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교섭 주도권은 물론 법적 대표성에도 적잖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내부 갈등은 공동교섭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이달 초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동교섭에서 이탈했고,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내부에서도 초기업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비 인상과 파업 스텝 모집 과정도 논란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초기업노조는 최근 월 조합비를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파업 기간 활동 인력에게 최대 300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여기에 집행부 직책수당 관련 규정까지 정쟁행위 찬반투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과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치분 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협상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DX 구성원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 “공기역학으로 車 설계 혁신… 에어로 파트 27개국 수출”

## 르포 에이드로

브랜드별 파츠·바디킷 230종 개발  
공기저항 줄여 주행 효율 개선

해외 매출 98%… 미국시장 주력  
창업 5년 만에 500만불 수출탑

車 설계 소프트웨어 AOX 출시 예정  
UAM·모빌리티로 기술 확장 모색

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용인 양지읍.

캠핑장, 골프연습장, 한옥스테이 등이  
모여 있는 조용한 숲길의 끝에 ‘140년간  
바뀌지 않은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의 혁  
신’을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에어로 테크  
스타트업 에이드로(Adro) 본사가 있다.

회사 1층은 마치 자동차 공업사를 연  
상시키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고객들의 차에 직  
접 파츠를 장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  
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주행 실험이  
필요할 땐 인근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스  
피드웨이를 이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1억원의 매출을  
거둔 에이드로는 이 가운데 98%를 해외  
에서 거뒀다. 해외 매출의 60% 가량은  
자동차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벌어들였다.



윤승현 에이드로 대표가 경기 용인에 있는 본사에서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자동차 주행성능을 높이는 에어로파  
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90억 달러  
(약 43조원) 정도다. 반면 한국은 20억원  
가량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우리는 가  
장 시장이 큰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27  
개국에 파츠를 수출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에이드로를 창업한 윤  
승현 대표(사진)의 말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에이드로  
는 창업 5년 만인 지난해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국무총  
리 표창까지 받았다. 벤처기업 인증, 글  
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등도 획득했다.

에이드로는 공기역학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공학+F1레  
이스+자동차 디자인’을 접목해 제품을  
디자인해 선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자동차 파츠나 바디킷을  
만드는 회사는 많다. 하지만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해 파츠를 만드는 회사는 없  
다”고 자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F1  
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한 영국의 사  
우샘프턴 대학에서 경주용자동차 공기  
역학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현재 에이드로의 대표 사업은 공기역  
학을 이용해 개발·양산한 에어로파츠와  
바디킷이다. 고정밀 카본 فاي버(CFRP)  
등으로 만드는 파츠는 BMW, 포르세  
등의 브랜드 차종에 맞는 230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태다.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출력에 변화를  
주지 않고 파츠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를 적게 쓰면서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  
드는게 에이드로의 사명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파츠 등을 통해 약  
20%의 공기저항을 줄이면 5~7% 가량 효  
율이 더 올라간다는게 회사측 분석이다.

한국에서야 일명 ‘튜닝카’를 가품에 콩  
나뭇 풀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차 매니  
아들이 많아 통상 차값의 10% 가량을 튜  
닝 비용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값이 2억원이라면 2000만원 정도를 파  
츠나 각종 튜닝에 투자하는 셈이다.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에이드로의

경우 창업 첫 해 6억원 가량에 그쳤던 매  
출은 18억(2021년)→33억(2022년)→48  
억(2023년)→95억(2024년)→111억원  
(2025년)으로 5년 사이 매년 77% 씩 성  
장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에이드로는 파츠 사업의 성장을 토대  
로 ‘공기역학 설계 소프트웨어(AOX)’  
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  
차 디자이너들을 위한 AOX는 6월께 본  
격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동차 생산 방식은 디자이너  
가 초기에 공기역학까지 반영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어려웠다. AOX는 설계  
첫 단계부터 최적화 방향을 도출하고 디  
자인에서 엔지니어링으로 피드백을 최  
적화하는 등 개발과 비용을 동시에 줄여  
준다. 무엇보다 AOX를 통해 차 정비 효  
율과 연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  
발했다.”

에이드로는 현재 미국, 호주,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있다. 호주와 그리스에는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윤 대표는 “우리의 공기역학 기술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를 위한 AO  
X도 마찬가지다. 항공 및 UAM(도심항  
공교통),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트  
럭, 레저·스포츠 장비 등으로의 무한 확  
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벤처펀드 1분기 4.3조 역대 최대… 투자시장 회복세 뚜렷

중기부, 1분기 벤처투자·펀드 동향  
신규 결성 전년비 30.7% 증가  
ICT서비스·전기장비 등 투자 견인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4조36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  
다. 1분기 벤처투자액은 3조3189억원으  
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  
드 결성 동향’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  
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  
을 합친 것이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  
년 동기보다 30.7%, 신규 벤처투자액은  
24.1% 각각 증가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2022년 1분기(3조9189억원)가 역대 최  
고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 미  
만으로 저금리였던 2021년 비해서도 벤  
처투자 금액은 34.3%(8479억원), 펀드  
결성액은 57.2%(1조6000억원) 늘어났  
다”면서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완전한 성장 국면에 진  
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1분기 중  
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  
7000억원을 기록, 이를 합산할 경우 올  
해 1분기에만 5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는게 중기부  
의 분석이다.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상위 3

개 업종은 ▲ICT서비스(21.4%) ▲바이  
오·의료(20.5%) ▲전기·기계·장비  
(15.3%) 분야였다.

ICT서비스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1분기 벤처투자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  
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투자 증가 영향이 컸다.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선 로보틱스,  
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기술분  
야의 성장과 함께 투자도 활발했다.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39억원 증가(85.5%)했  
다. 이는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대형  
투자로 인해 전체 규모도 커졌다. 벤처  
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8개사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

됐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으로 올해 1분기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10개 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연  
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  
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기부  
는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유니  
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  
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B787-10.

## 유류할증료 한 달 만에 ↓ 내달 5~6단계 하락 전망

뉴욕 노선 최대 20만원 낮아질 듯

국제선 여객기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  
고 수준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하락 전  
환할 전망이다. 일본 등 단거리노선은 2  
만원 전후로 뉴욕 노선은 56만원선에서  
36만원선으로 20만원 가량 낮아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오는 18일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공  
지할 예정이다.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6월 할증료는 현행 최  
고 단계인 33단계보다 5~6단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  
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6월 유류할증료 산  
정 기준인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  
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0~430센트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구간제 기준 27단계(420~429센트) 또는  
28단계(430~439센트)에 해당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한솔제지, 종이 디자인 가치 확장… ‘인스퍼 어워드’ 성료

종이 소재 디자인 작품 538점 출품  
인스퍼상 등 총 26개 작품 수상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상 신설

한솔제지가 국내 최초의 페이퍼 디자  
인 어워드를 통해 연관 산업 발전 추가  
모색에 나섰다.

한솔제지는 ‘제 8회 인스퍼 어워드(I  
NSPERAWRAD)’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 17일 밝혔다.

한솔제지 팬시지의 대표 브랜드 ‘인  
스퍼(Inspers)’는 ‘디자이너들에게 영감

을 불어넣는(Inspiring) 종이’를 의미하  
며, 인스퍼 어워드는 이러한 브랜드 정  
신을 바탕으로 종이 소재 디자인과 제작  
물을 조명하는 국내 첫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다.

이번 어워드에는 종이로 제작된 다양  
한 인쇄, 패키지, 디자인 작품 총 538점  
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고상인  
인스퍼상을 비롯해 블랙페이퍼상과 골  
든페이퍼상, 영디자이너상, 특별상과  
지속가능성상 등 총 2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상금 규모는 21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상’을 새롭게 신설했다. 해당 상은 종이  
와 디자인을 활용해 브랜드 고유의 정체  
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글로벌 무  
대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  
여한 기업 및 브랜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있어 용지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올해 수상작에 인  
스퍼의 대표 제품군을 비롯해 프로테

고, SC(N), 클라우드 등 한솔제지의 다  
양한 제품이 폭넓게 활용되며 작품별 콘  
셉트와 표현력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는 “국내 최초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로 시작한 인스퍼  
어워드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종  
이가 단순한 소재를 넘어 사람과 브랜  
드,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플랫  
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한솔  
제지는 다양한 창작 활동과 디자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종이의 새로운 가능성  
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K-콘텐츠, AI 만나다... 창작자·산업계, 저작권 보호 박차

국가AI전략위, 문화·콘텐츠분야  
창의성·기술 결합 AI 문화강국 목표  
음악저작권협회, '퓨처 랩' 신설  
안무저작권협회, UCI 발급 추진  
네이버웹툰, 불법 복제 콘텐츠 차단  
넷플릭스, 저작권 분쟁 가능성 낮춰



국내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택한 가운데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가 저작권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산업 전반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독자 AI 모델과 GPU·데이터센터 확대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환(AI),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업계 내 AI 활용

비중 확대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0%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과거 AI가 창작 행위를 침해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결과물을 보조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자 단체는 최근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체제 개편을 통해 AI 저작권 컨트롤타워 '퓨처 랩'을 신설했다. AI 활용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한 저작권자가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서다. 한국인무저작권협회는 안무 콘텐츠에 국가기준 식별체계(UCI)를 발급하는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 추진한다. 안무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저작권료 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실화 되면 음원 시장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숏폼에서 활용될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웹툰은 '트레이더'를 기동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 유출을 막는다. 이는 작가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졌다. 트레이더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작품 게재와 동시에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수가 90% 감소했고,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를 방어진작품의 결재액 평균은 23%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번역 시차를 제거해 국내외 동시 연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해외 시장 결재액은 200% 이상 급증

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저작물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낮춰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자가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아웃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일반 블로그·SNS 등에 공개된 콘텐츠는 기업이 우선 활용한 뒤 창작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무단 학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 아시아 넘어 북미·유럽으로... K-게임, 콘솔·PC로 확장

넥슨, 북미·유럽 매출 4배 이상 확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인도 성과  
펄어비스, '붉은사막' 콘솔·PC 인기  
넷마블·웹젠, 해외매출로 실적 방어



넥슨 아크레이더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펄어비스 붉은사막.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 중심이던 K-게임이 올해 북미·유럽·인도 시장에서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의 주류 무대로 빠르게 이동하는 분위기다. 모바일 중심 구조 역시 PC와 콘솔로 확대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1분기 해외 시장 성과를 앞세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거나 국내 시장 부진을 방어했다. 특히 북미·유럽과 인도 시장이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올랐다. **◆ 북미·유럽 뚫은 넥슨** 넥슨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4201억원, 영업이익 5426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북미·유럽 매출

은 4배 이상 확대됐다. 성과 중심에는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와 신작 아크레이더스가 있었다. 또 아크레이더스는 글로벌 시장 흥행과 함께 영국 BAFTA 게임 어워드 2026 멀티플레이어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기존 온라인게임 중심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멀티플랫폼 게

임사로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인도 시장 장악한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올해 1분기 매출 1조3714억원, 영업이익 5616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다. 핵심은 인도 시장이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유료 결제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배틀그라

운드 IP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크래프톤은 단순 게임 서비스를 넘어 현지 e스포츠와 콘텐츠, 커뮤니티 생태계까지 확장하며 인도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도 국민 게임 수준의 플랫폼 파워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콘솔 시장 존재감 키운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사막 흥행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 3285억원, 영업이익 2121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붉은사막은 지난 3월 글로벌 출시 이후 500만장 판매를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해외 매출 비중은 94%까지 확대됐고 북미·유럽 비중은 81%를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별 매출 비중이 콘솔과 PC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한국 게임사들의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출시 초기 평론가 평가 부진으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후 조작성 개선과 콘텐츠 업데이트를 빠르게 진행하며 글로벌

이용자 평가를 끌어올렸다. **◆ 해외 매출이 국내 부진 메웠다** 국내 시장 침체를 해외 매출로 방어하는 흐름도 뚜렷해진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매출의 79%를 해외에서 거뒀다. 북미 매출 비중은 41%로 국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신작 매출 기여가 제한적이었음에도 글로벌 매출 기반이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웹젠 역시 올해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5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국내 게임시장 침체 속에서도 해외 매출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K-게임 산업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국가와 모바일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콘솔·멀티플랫폼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제 K-게임 경쟁력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판기를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북미와 유럽, 인도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칭 피싱 주의보

'멤버십 결제 완료' 메일 발송으로  
비밀번호 입력 유도... 클릭 자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 안내 메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면서 이용자  
계정 정보 탈취 주의보가 내려졌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 안내  
메일로 위장해 이용자 계정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공지했다.  
이번 피싱 메일은 '멤버십 결제 완료'라는  
제목으로 발송되며 실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 안내 메일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됐다.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마이 멤버  
십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

트로 연결돼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싱 메일은 결제일과 버튼 색상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확인됐다. 업계  
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메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피싱 캠페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 두 버전 모두  
상품명과 결제 금액, 이용 기간 등 실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안내 메일과 동일한  
형식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만 정상 메일과 달리 제목 앞에  
영문 'MemberShip' 태그가 붙어 있으며 발신  
자 이메일 주소 역시 '@navercorp.com'이 아닌  
다른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ID 보안 설정  
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됐다. 로그인  
화면이 아닌 비밀번호 재확인 화면으로  
위장해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것  
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특히 피싱 페이지는  
접속 시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자동  
입력된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돼 이용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는 네이버 서버가 아닌  
공격자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이미 피싱 페이지에 계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 즉시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빛나 기자

## '창구' 스타트업 10곳, 구글 개발자 행사 참가

구글 플레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졸업 기업들, '구글 I/O' 전 일정 참여  
구글 플레이 '창구'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내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 10곳이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 2026'  
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 플레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구' 졸업  
기업들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구글 I/O 전 일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은 블루시그널·클레브레인·  
카운트다운에이아이·아티젠스페이스·트

이다·팀리미티드·플래닛·피터페터·슬링  
·뤼튼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교육, 이미지  
편집, 마케팅,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 I/O는 구글이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개발자 행사로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개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창구는  
구글 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국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기까지 총 660개 졸업 기업을 배출했다.  
/최빛나 기자



# 첨단산업 소부장 투자지원 확대 1700억 투입... 로봇·방산 등 추가

산업부, 약 30개 기업 지원 예상  
신규 입지·설비투자액 30~50%  
핵심 소부장 국내생산 기반 안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총 1700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에 이어 올해부터는 '로봇'과 '방산' 분야가 새롭게 추가해 총 6개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예산을 지난해(700억원)보다 3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 등 70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평균 지원 규모(약 55억원)를 고려하면 약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목표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도 기대된다. 국비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최대 200억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2개 기업에 약 1200억원을 지원해 총 5561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지원 기업의

80%가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5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자체(오후 1시)와 기업(오후 3시 30분)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7일 16시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현장 실사와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하여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ys@metroseoul.co.kr



이달 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의 국제학교 ASF 교정에 설치된 '축구 테마체험존'의 모습./aT

## aT, 멕시코 청소년에 K-푸드·문화 알리

ASF서 체험행사... 1000여명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 청소년 대상의 K-푸드 체험행사를 열었다. aT는 2026 북미 FIFA 월드컵을 한 달 앞둔 이달 둘째 주, 개최국인 멕시코 현지지를 찾았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재 국제학교 ASF에서 '케이푸드 엔 투 에스쿠엘라'(학교에서 즐기는 K-푸드) 행사가 열렸다.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체험에 참가했다.

aT는 한국 식문화 및 교육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비빔밥, 김치, 잡채, 떡볶이 등 대표적인 K-푸드를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월드컵 분위기를 반영해 축구 테마의 공간에서 슈트 챌린지를 진행하고, 한복체험·전통놀이 등의 K-컬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는 시간표를 짜다.

둘째 날에는 교직원과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향후 학교급식으로의 K-푸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K-푸드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전,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으로 효율화

전력망 건설거리 416km 단축  
투자비 3.6조 ↓, 주민수용성 향상

한국전력(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력을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에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길이를 416km 단축하고, 총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 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통합설비 구축 비용 분담,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방식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들이 내륙 변전소까지 각자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중박 설비 처리에 따른 국토 난개발과 주민 수용성 약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은 섬이나 해안가에서 발전된 대규모



(왼쪽부터) 강명원 DWO한국 대표이사, 니콜라스 그람바스 KREDO COO, 김동철 한전 사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페라다코 파타나한 조도풍력 대표이사, 이화 루 CIP 투자 총괄 파트너, 김태경 다도풍력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모 전력력을 서해안 HVDC에 직접 연결해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들이 고객 변전소와 HVDC 변환소를 통합 구축하고 접속설비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703km에 달했던 전력망 건설 거리가 287km로 약 416km나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도 약 3조 6000억 원가량 대폭 절감된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와 중박 설비가 줄어들면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동시에 확보되고, 계통수용 가능용량 및 계통 안정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해남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고창, 고흥, 영흥, 태안 등 전국 9개 지역에 공동접속 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공동접속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완화와 환경영향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전은 이번 해남 공동접속 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전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참여 발전사들과 세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해남 지역 공동접속 업무협약은 해상풍력 계통 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대전환점"이라며, "발전단지와 공용망을 통합하는 전력망 재구성을 통해 한전과 발전사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 28개 선정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과 맥봇 로봇 자동 통제인저 제품 '주목'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술과 신제품 28개가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2026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공고하고 해당 기업들에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과 제품이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약 1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신기술 12개, 신제품 16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총 170개 기술이 도전해 전기·전자(7개), 정보·통신(1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3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1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개 기술이 뽑혔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흥스웍스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이 주목받았다. 이 기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환하는 무구동형

이젝터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인증 부문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해 전기·전자(6개), 정보·통신(1개), 기계·소재(1개), 화학·생명(3개), 건설·환경(5개)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 유엔다가 개발한 '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통제인저'가 선정됐다. 이 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탈부착 시(1초 이내 흡착·탈착)에만 순간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제조 자동화는 물론 스마트팩,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공공기관 의 무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우대 등 금융 지원과 각종 정부사업 신청 시점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

## 채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징수' 전환

근로복지공, 국세채납처분 방식 적용

국가가 채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채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채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

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채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채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채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채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용수 기자

## 해수부 "당분간 흥해 통해 원유 들여올 것"

선원 심리상태 점검 병행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사쪽의 흥해를 페르시아만 사태의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동산두바이유 등의 석유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들여오겠다는 것. 이 해협은 흥해와 인도양을 잇는다. 정부는 또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체 수송 경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 해도, 일단 이전 항로의 원상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항로가 (약간) 옆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만 연안 등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체항로 흥해를 통한 원유 운송 상황도 전했다. 그는 "(사우디 서부 안부 소재) 안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의 경우, 한 척은 이미 하역했다. 또 세 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이) 당분간 흥해 쪽으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시아만 일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 관련 질의에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료품 등의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경북도, 400억 투입해 반도체 챔버 핵심부품 자립화 시동

챔버용 테스트베드 구축 조성  
현재 핵심부품 대외 의존도 90%  
K-반도체 밸류체인 거점 도약



경북도청.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마일 등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던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를 전폭 지원하며 'K-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반도체 챔버 핵심부품이란 반도체 챔버(제조 장비 내부)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정전적)하거나 플라즈마를 제어(오픈스링)하고 극한 공정 환경으로부터 장비를 보호(라이너)하는 핵심 소모품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2mm급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 도입에 따라 극저온·수소 플라

즈마 등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고부가 챔버 부품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일본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반도체 핵심 부품 개발 때 고가의 준양산급 장비 부족으로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북도는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구축과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용화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챔버용 3대 핵심 부품(정전적, 링, 라이너)은 대외 의존도가 90%를 웃돌고 있다.

도는 이 사업으로 개발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40% 이상 줄이고 개발 비용도 50% 이상 절감해 수입 대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달부터 5년간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50, 도비 75, 시비 175억원)을 투입해 구미국가1산업단

지 내(구미시 공단동 방림부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지역의 소재 부품 제조 기술과 수도권외의 칩 양산을 잇는 'K-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주관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연면적 3000㎡(클린룸 500㎡ 포함)의 반도체 챔버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시제품 제조공정 지원, 제조공정 분석 평가 기술 지원을 위한 36종의 장비를 구축한다. 공동 참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지원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경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중심지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부산시사 제8~10권 발간

부산시는 교육 분야 등 지역의 변천사를 수록한 '부산시사' 제8~10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사 편찬 사업은 1991년 완간된 부산시사(전4권, 1989~1991년)를 30여년 만에 증보·수정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부산역사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통사 4권과 분류사 18권을 2029년까지 연간 3권씩 발간할 예정이다.

부산시사는 현대까지 부산역사 흐름을 정리한 통사편 4권(2024년)과 정치사, 경제사, 사회복지·보건의료사를 정리한 분류사 3권(2025년) 간행에 이어 8~10권에서는 교육사, 언론통신사, 대외교류사를 정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유망 스타트업 투자·성장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3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B OUNCE PIE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투자 라운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창업 7년 미만 투자 유치 희망 스타트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직접투자 검토, 파트너 투자사와의 1대 1 미팅 및 멘토링, 투자사 미팅 데이, FINAL DEMODA Y 참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익산시

#### 신청사 내 시민 위한 공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 내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시설은 다목적홀, 시민동아리방, 야외공연장 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4만 234㎡) 규모로 건립된 익산시 신청사는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시민 편의 기능을 더한 '복합 행정공간'을 지향해 왔다.

/익산(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 경북도

#### K-글로벌 수출 리더기업 육성

경북도는 '2026 K-글로벌 수출 리더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역량 진단부터 현지 비즈니스 구축, 해외 파트너와의 합법적인 설립까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에 본사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140억원 초과, 직·간접 수출 실적 300만 달러 이상 기업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세 방식 유지

특별시세 83.1%, 구세 16.9% 비율  
올해 예상액 광주 2.5조, 전남 4.2조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27개 시·구·군의 지방세 징수는 통합 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심,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세 83.1%·구세 16.9%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 특별시 출범 후 27개 시·구·군의 지방세는 통합 전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9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주시는 이중에서 비중이 큰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 사업자 분을 걷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세입 총 예상액은 광주시 2조

970억원(83.1%), 5개 자치구 4252억원(16.9%) 등 모두 2조5222억원 규모다.

전남은 상황이 다르다. 광주시가 걷고 있는 지방세 대부분을 22개 시·군이 자체 징수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세는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 뿐이다.

총 예상액은 4조2299억원으로, 도세 2조4800억원(61.7%), 22개 시·군 1조5429억원(39.3%)이다.

광주는 광역단체, 전남은 기초단체 중심으로 세율과 세입이 집중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통합 후 특별시장이 걷는 특별시세는 기존 광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4조5770억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통합 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시세와 도세를 합칠 경우 산술적 세수는 늘지만, 세목이 기존대로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제인 양도소득세 전액, 또 법인세의 50%, 부가세 추가 5% 지방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영덕군서 조선 궁중문화 체험하세요”

내일부터 ‘궁, 바퀴를 달다’ 진행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덕군민이 궁중연향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전통 공연까지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무대가 마련된다.

경북 영덕이 조선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무대로 변신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19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궁중문화의 정취를 나눈다.

‘궁, 바퀴를 달다’는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궁궐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영덕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행사는 궁중연향의 흐름을 바탕으로 꾸민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궁중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뒤 궁중정재와 지역의 소리 공연, 사자춤 다양한 전통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영덕에서 궁궐 문화와 지역 공연예술이 어우러지는 이색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행사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회차별 150명씩 모두 3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에게는 궁중병과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영덕 행사가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영주시가 산행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 소백산 철쭉 개화... 봄 관광객 겨냥 축제

오는 23~24일 ‘영주 소백산철쭉제’

영주시가 소백산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봄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소백산 일원과 풍기인삼문화산업공원에서 ‘2026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열고 자연경관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참여형 관광 축제를 운영한다.

올해 철쭉제는 기존 산행 위주 행사에

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일반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꾸며진다. 영주시는 ‘등산화 없이도 즐기는 철쭉축제’를 핵심 콘셉트로 내세우고 소백산과 풍기 행사장을 연계한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소백산 권역에서는 죽죽제와 죽령옛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 걷기 행사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 홍성군, 숨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지원

‘그냥드림’ 사업... 물품·복지 제공

홍성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18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이 시급한 위기 상황의 주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간단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즉시 물품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3~5종이 제공된다.

운영 장소는 홍성종합터미널 인근 보훈회관 1층에 위치한 ‘홍성군 푸드마켓·뱅크(홍성읍 의사로72번길 41-8)’이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특히 ‘그냥드림’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이 공공 복지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올리브영, 3개 분기연속 매출 1.5조... '옴니채널' 전략 힘 준다

### 1분기 순익 1300억... 자산 2.7조 상권에 따른 대형·특화 매장 확대 캘리포니아 등 美 진출 본격화

CJ올리브영이 올해 1분기에도 무서운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국내 매장 효율화와 방한 외국인 관광객 급증을 바탕으로 3개 분기 연속 매출 1조5000억원대를 달성했다. 국내 시장을 평정한 올리브영은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에서 올리브영만의 '옴니채널' 전략을 가동하며 K뷰티 영토 확장에 나선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1조53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1조5570억원, 1조5804억원을 경신한 데 이어 1조5000억원대 매출 행진을 계속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커져 1300억원을 거뒀다. 자산은 2조7013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적호조세는 온·오프라인 채널의 동반 성장이 주효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조284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



CJ올리브영 광장마켓점.



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 전경.

/CJ올리브영

가했다. K컬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 상권 매장의 외국인 유입 매출이 고성장했다.

올해 들어 웰니스 전용 매장은 올리브베어를 서울 광화문·강남 등에서 연달아 공개했다. K뷰티 영역을 화장품에 제한하지 않고 간식,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장시장에 특화 매장으로 '광장마켓점'을 내놴다. 올리브영은 대형·특화 매장 중심의 운영 전략을 꾸준히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한 약 5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적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3.1%로 확대됐다. 온라인몰 활성 사용자 수(AU)가 크게 늘어난 데다 올리브영의 독보적인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이 성장세를 견인한 성과다.

올리브영은 2분기부터 국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

국내에서는 '올리브 포인트'를 재단장했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CJ ONE 포인트에 더

해 추가로 적립되며, 포인트 적립, 브랜드 경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충성 고객 확보 및 고객 고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올리브영이 올해 가장 공략하는 시장은 미국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현지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하며 미국 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해당 법인 설립 1년 3개월을 맞이한 올해, 올리브영은 '글로벌 K뷰티 1위 플랫폼' 도약을 위한 전진 기지를 공개한다. 이달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올리브영 미국 1호점이

문을 열고 이후 올해 안에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필드 등 오프라인 매장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현지에서 대형 K뷰티 쇼케이스는 운영함은 물론 동시에 상품 소싱, 마케팅, 물류 시스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기능의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올리브영 글로벌몰(해외 소비자 대상 직구 온라인몰)'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글로벌몰은 이커머스에 친숙한 북미권 젊은 층에서 특히 반응이 좋아,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미국 매장은 국내 유망 K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확산과도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한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글로벌몰에서 검증된 브랜드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여지면서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브랜드 입장에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올리브영이 성장 부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남양유업, 1분기 영업이익 572% ↑... 성장 국면 재진입

### 매출 2252억, 당기순이익 63억 기록 수익 중심 구조재편... 수출·B2B 성과

5년 적자의 터널을 지난 남양유업이 수익성 중심 구조재편과 수출·B2B 확대를 앞세워 외형 성장 국면에 재진입했다. 일회성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동반 개선되며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52억 원, 영업이익 5억 원, 당기순이익 6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2%, 419% 늘었다. 순이익에는 흥원식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관련 피해 변제금 82억7000만 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단순한 흑자 유지가 아닌 '수익 구조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그간 저수익 사업과 품목을 정리하며 외형이 일시 축소됐지만, 고마진 제품과 채널 중심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현장 모습 (왼쪽부터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춘 한엔컴퍼니 부사장, 정용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장) /남양유업

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왔다.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구조재편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축은 수출과 B2B다. 1분기 수출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캄보디아·베트남 중심의 분유 수출이 54% 늘었고, 동결건조커피·믹스커피·단백질 제품 등이 포함된 기타 품목 수출은 136%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CVS, SSM, 이커머스 채널

매출이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FS(식품서비스)로 대표되는 B2B 매출이 13%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급식업체 거래처 확대, 우유·발효유·크림 등 공급 품목 다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제품군별로는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 매출이 72% 급증했다. 라인업 확대와 채널 확장이 성장을 견인했다. 커피믹스는 '프랜차이즈 카페믹스 산양유 단백질' 효과로 14% 증가했고, 가공유는 '초코에몽', '말차에몽'을 중심으로 7% 늘었다.

자회사 백미당도 구조 재편 효과를 보였다. 1분기 매출은 76억 원으로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적자에서 1억2000만 원 흑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사업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유업은 베트남 유동 대기업과 조제분유 공급 MOU를 체결한 데 이어, 4월 한-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서 3년간 700억 원 규모의 추가 협약을 맺었다. 베트남 시장에서 '임페리얼XO', '키플러스', '드린치유기능 아기치즈' 등 유아 식품을 카테고리 단위로 전개하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포트폴리오 재편과 채널 효율화, 성장 카테고리 확대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유·커피·단백질 중심의 해외 사업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엔컴퍼니 체제로 전환한 이후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과 운영 효율화에 집중해 왔다. 업계는 이번 1분기 실적을 '흑자 전환 이후 성장 국면 진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모델이 '황복복복 우유샌드'를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 CU 생과일 샌드위치 상시 판매

CU가 계절 한정 상품으로 여겨지던 생과일 샌드위치를 사계절 상시 운영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 계절 상품의 경계가 흐려지며 연중 판매 체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과일 샌드위치 역시 겨울철 한정 상품에서 상시 디저트 카테고리로 자리 잡게 됐다.

CU는 앞서 복숭아를 활용한 '황복복복 우유샌드'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황도와 우유크림을 함께 넣은 디저트형 샌드위치다. /김서현 기자

## 이마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하세요"

사용 가능한 매장마다 안내문 부착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문이 부착된 이마트 매장. /이마트

이마트가 전국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990여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임대매장 약 2800여곳 중 약 35%에 해당한다.

주요 사용처는 미용실,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

마다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롯데마트, '오늘좋은' 몽드 셀렉션 4관왕

단백질바 미니·제트콘 금상 수상

롯데마트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 '2026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PB '오늘좋은' 4개 상품이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늘좋은' 단백질바 미니(144g)와 '오늘좋은' 제트콘(90g)은 출품한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으며, '오늘좋은' 백미밥(210g)과 '오늘좋은' 흑미밥(210g)은 은상(Nominee)을 수상했다. 2026 몽드 셀렉션에 출품한 상품들은

맛, 향, 식감, 포장 등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맛과 식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몽드 셀렉션 수상을 기념해 내달 2일까지 몽드 셀렉션 수상 24개 PB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제 식품 품질 평가인증 기관이다. 전문 셰프, 소믈리에, 영양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 평가단이 맛과 향, 식감, 패키지 등 2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김서현 기자

## 파리바게뜨 KT 멤버십 고객 할인 혜택

파리바게뜨가 K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T 멤버십 이용자는 전국매장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1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는 5월 31일까지이며, 쿠폰은 KT 멤버십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달달.혜택' 페이지에서 선착순 7만 명에게 제공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케이크, 베이커리, 디저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체감 할인 폭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다이공 대신 개별 관광객... 면세점 전략 전환, 실적 살렸다

(중국 보따리상)

국내 면세점 4사, 1분기 '흑자' 외국인 관광객 전년비 23% ↑ 체험형 콘텐츠 등 전략 재편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고강도 구조조정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중심 전략 전환에 힘입어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 침체와 중국 보따리상(다이공) 의존 구조로 수년간 적자에 시달렸던 면세업체가 방한 관광객 회복과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주요 면세점 4사는 올해 1분기 일제히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올 1분기 매출 7922억원 영업이익의 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4%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1% 급증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역시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적자 탈출을 알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렸다. 신라면세점은 시내면세점 매출이 11.7% 신장하는 등 총 매출 8846억원 영업이익의 122억원을 달성했다. 신세계면세점 또한 매출 5898억원 영업이익의 106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수익성이 낮은 인천공항 일부 구역에서 철수하면서 고정비를 절감해 향후 손익 구조는 더욱 개선

될 전망이다. 현대면세점은 운영 효율화 전략을 통해 외형 축소 속에서도 실적을 쟁겼다. 지난해 하반기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 영업을 종료하면서 매출은 2137억 원으로 27.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의 3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부터 인천공항

DF2 구역에 신규 입점함에 따라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면세업체의 이 같은 극적인 반등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패턴의 변화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방한 외국인 수는 474만 312명으로 전년 동기 387만 247명 대비 22.6%로 크게 늘었는데, 특히 올해 3월 204만 9925명이 방한하며 전년 동기 161만 4596명 대비 26.7% 증가했다. 면세점 업계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끼쳤다. 한국 면세점협회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구매객은 108만 920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크게 늘었다. 전체 매출 금액은 1조 824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19%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오히려 질적 개선의 지표로 읽힌다.

과거 한국을 찾던 외국인들이 주로 단체 관광이나 소수의 다이공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방한하는 개별 관광객이 대폭 늘었다. 더불어 위안화 강제로 방한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매력 또한 크게 늘었다. 다이공 또한 지급하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전년 대비 6%p 이상 낮추면서 마진 구조가 대폭 개선된 점이 실적 반등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수익성 중심의 전략은 면세점 공간과 상품 구성의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소수의 보따리상 수요에 의존하기보다 구매액은 다소 작더라도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공간·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단순히 해외 명품 브랜드를 내세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국내 화장품(K뷰티) 패션 식품 체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고 나섰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K-식품 중심의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와 K-팝 콘텐츠를 연계한 'K웨이브존'을 구축해 젊은 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현대면세점 역시 K-뷰티 브랜드 40여 개를 모은 'K코스메틱존'을 전면 배치해 맞춤형 공략에 나섰다. 인천공항점에 복귀한 롯데면세점은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매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요를 잡기 위한 상품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최대 실적' 제이브이엠, 해외 확장 본격화

한미약품그룹, 중국 공장 신설 '아시아 지역 생산 허브' 입지 확대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약국 조제 자동화 전문기업 제이브이엠(JVM)이 중국 공장을 신설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최근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생산 기지를 마련함으로써 '실적 고공행진'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제이브이엠은 지난달 중국 쑤저우 공업 원구에 의약품 자동조제 설비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성장하는 중국 내 자동조제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납기 단축, 가격 경쟁력 제고 등 공급망 최적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이브이엠의 주력 제품인 자동약품 분류·포장 시스템 'APS 장비' 제품군(300NS, 360NS, 420NS, 480NS)을 집중 생산하게 됐다. APS는 병·의원, 약국 등의 조제 현장에서 쓰인다.

아울러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는 중국



지난달 제이브이엠 중국 공장 준공식에서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선미 당서기(왼쪽에서 여섯 번째)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대표 첨단 산업 단지로 메디컬 특화 인프라와 우수한 제조 환경을 갖췄다. 제이브이엠은 향후 부품 및 자재 조달 기능까지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 생산 허브'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은 한미약품그룹의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이다. 제이브이엠은 앞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로봇 기반 자동조제 장비 카운트 마이트, '메니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여 왔다.

현재 제이브이엠의 매출 비중은 해외

52.1%, 국내 47.9% 등이다. 이중 유럽 비중 23.2%, 북미 18.3%, 기타 지역 10.6%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 구도를 이뤄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 455억 원, 영업이익 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4.8% 증가했다.

또 매출액의 4.8% 수준인 2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등을 도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장벽·탄력 동시에... 오후, 더마 앰플 출시

LG생건, 기존 제품에 PDNR 성분 더해

LG생활건강이 고급 브랜드 오후에서 더마 제품군을 확대 구축한다.

LG생활건강은 오후 신제품으로 '프라임 어드밴스 오리지널 에너지 100 앰플'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 오리지널 에너지 100 앰플에 PDNR 성분을 더한 피부 탄력을 위한 제품이다.

오후만의 30년 피부 연구 노하우를 집약했다. 가수분해 공법을 적용해 피부 침투력을 강화한 'H-PDRN 90' 성분을 고함량으로 처방했다. 또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피부 콜라겐의 아미노산 서열 및 삼중나선 구조를 구현한 성분을 함유해 항노화 기능을 갖췄다.

특히 동아시아 여성의 탄력 저하가 얼굴 중심축에서 두드러진다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제품 사용 2주 후, 앞볼, 팔자, 입가 등 얼굴 중앙부에서



오후, '프라임 어드밴스 오리지널 에너지 100 앰플' /LG생활건강

360도 입체 탄력이 최대 17.8%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 방울만으로도 피부를 매끈하게 정리해 주는 제형이 특징이다. 다음 단계 스킨케어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브랜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방울에 핵심 성분을 90% 이상 담은 PDNR 코어 앰플을 선보이게 됐고 럭셔리 더마 브랜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라네즈, 장거리 비행 맞춤 스킨케어 선봬

에티하드항공 기내 아메니티 선정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항공과 협업해 K뷰티 경험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한다.

라네즈는 에티하드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글로벌 컬렉터블 기내 아메니티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아메니티는 장시간 비행과 건조한 기내 환경에서 피부가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스킨케어다. 브

랜드 대표 제품인 워터 슬리핑 마스크, 립 슬리핑 마스크 등을 포함한다.

워터 슬리핑 마스크는 히알루론산과 스쿠알란 성분을 처방해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을 관리해 준다. 립 슬리핑 마스크는 베리 프루트 콤플렉스, 무루무루씨드 버터, 시어 버터 등을 함유해 여행 중 거칠어지기 쉬운 입술을 부드럽게 만든다.

해당 제품들은 오는 여름 시즌부터 에티하드항공 프리미엄 캐빈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유닛 최필경 부사



에티하드항공 프리미엄 기내 아메니티.

장은 "라네즈의 피부 장벽 사이언스를 기내 환경에 맞춤 스킨케어 경험으로 풀어내 여정 중에도 고객들이 편안함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라네즈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뉴 뷰티를 글로벌 하늘길에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GC녹십자재단, 감염병 상황 한눈에 본다

감염증 감시 보드 'Epi-wave' 공개

GC녹십자의료재단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GCLabs 홈페이지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측하는 감염증 감시 보드 'Epi-wave'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Epi-wave'는 최근 3개년간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시행한 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구축됐다. 아데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10종의 바이러스 정보를 포함한다. 또 세균 감염증 2종과 노로 바이러스를 비롯한 장관 감염증

5종도 다룬다.

이 대시보드는 감염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병 진행 수준을 주간 단위로 파악하고 막대 그래프, 곡선 그래프 등을 그려 연도별 양상도 비교해 준다. 특정 감염증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상세 내용을 세분화해 의료 현장에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지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

이상근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감시를 고도화해 국가 방역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풀무원, 지리산서 친환경 산행 캠페인

풀무원이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에서 친환경 산행 수칙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풀무원은 지난 15일 노고단 대피소에서 '건강 먹거리, 건강 산행 캠페인'을 열고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산행 중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풀무원



청호나이스, 한강공원서 ESG 플로깅

청호나이스 임직원들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ESG 캠페인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내일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17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며 ESG 경영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내 환경보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호나이스



우리은행, 금융 고민 푸는 '이음상담센터' 개설

우리은행은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 고민을 해결을 지원하고자 서울 남대문, 강남, 홍대 등 주요 지역 3곳에서 문체 해결 중심의 상담 공간인 '우리 이음상담센터'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이음상담센터'는 기존 은행 영업점과 달리 금융상품 판매보다 고객의 금융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담 중심 특화채널이다. /우리은행



한국전력기술, AI혁신 그랑프리 대상 수상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엔지니어링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원자력 분야 AI 기술의 독보적 위상을 굳혔다. 한전기술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AI혁신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전력기술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울산동부지청장 김상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과 김기환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정은영 △규제혁신기획관 김명신

부음 ▲최영자씨 별세, 김민철(제너시스BBQ) 그룹 커뮤니케이션실(상무)·승희(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씨 모친상, 박진석(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씨 장모상, 이미영씨 시부상=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5호, 발인 19일 오전 7시. 02-2030-4444 ▲김인희(향년 92세)씨 별세, 정진오·정은자·정명자·정혜선씨 모친상, 양기호·민경중(한국외대 초빙교수, 코리아스 고문)·양동환씨 장모상, 한윤경씨 시모상=16일, 전주시타지례문화원 특301호, 발인 18일, 장지 전주승화원 화선공원. 063-274-4444

# 삼양그룹·휴비스, 사회공헌 '파란마음 그림축제' 성료

전국 유치원·초등생 600명 참여 그림대회·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보호 중요성 배우는 계기 마련

삼양그룹과 휴비스는 지난 16일 전북 전주 휴비스 공장에서 열린 '제28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시작된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는 삼양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행사에는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약 600명, 가족 포함 총 1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총 6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총상금 147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결과는 오는 6월 5일 그림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지난 5월 16일 제28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를 개최했다. /삼양그룹

참가 어린이들은 '지구와 함께 즐거운 우리 동네, 미래기술과 숲 쉬는 우리 동네'를 주제로 그림대회에 참가했으며 지구 그림톡 꾸미기, 재활용 키링 만들기, 방울토마토 씨앗공

만들기 등 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에코 플리마켓에도 참여했다. 배용준 삼양사 전주EP공장장은 "참가 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림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며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교원그룹, 야구 꿈나무 성장 지원

김혜성 선수 안타 등 기록 연계기부 초록우산과 '내일의 혜성' 캠페인

교원그룹이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그룹×김혜성·초록우산 내일의 혜성(NEXT COMET)'을 진행한다.

1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교원그룹과 김혜성 선수, 초록우산이 지난 1월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협약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원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취지에 김혜성 선수와 초록우산이 뜻을 함께하며 성사됐다.

교원그룹은 협약에 따라 김혜성 선수의 올 시즌 안타·도루 기록에 연동해 기부 물품을 적립하는 '성적 연계 매칭기부'와 초록우산 예체능 인재 지원 사업 '아이리더' 후원을 포함해

총 1억 8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의 혜성' 캠페인은 '내일의 혜성을 응원해 주세요'를 주제로, 유소년 인재 지원 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응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했다. 참여 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 약 3주간이며, 참여자는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에서 퀴즈 3문항을 맞추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혜성 선수는 유소년 꿈나무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 편지를 통해 야구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독려하는데 힘을 보탠다.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50명에게 김혜성 선수 사인본(프린팅) 또는 교원헬스케어 제품 '교원건강&액티폴츠', '라이트핏 프로틴업 셰이크 플러스'를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신현송 한은 총재, G7 회의 첫 참석

초청국 자격으로 정책 현안 논의

신현송한국은행 총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 출국해 2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브라질, 인도, 케냐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신 총재는 회의 기간 세계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글로벌 불균형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두고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신 총재의 이번 참석은 한국은행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몬스 임직원들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유기견 센터 '온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몬스

## 동아제약, 안전보건 경영 성과 인정

산재 예방·안전경영 강화 기여

동아제약은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안전보건팀 노경석 수석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상생 노사 문화구축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노경석 수석은 동아제약 안전보건팀장과 제약바이오 안전보건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제약산업 내 안전보건 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전부터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23년 7월 국내 제약 회사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안전보건 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이 연합회는 현재 38개 회원사와 90명 회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중대재해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동아제약 안전보건팀 노경석 수석이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제약

대내적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 경영 방침, 관리 계획 등을 수립했다.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 평가 교육, 노사 합동 안전 점검, 작업 전 안전회의의 정례화, VR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안전 교육, 신입 근로자 특별 교육 등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금연,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건강 진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시몬스,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봉사

임직원 30여명, 온캣·온독서 봉사

시몬스 임직원들이 유기견, 유기묘 봉사활동에 나섰다.

17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들은 동물자유연대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온캣(유기묘 센터)'과 남양주시 '온독(유기견 센터)'에서 이틀간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몬스 임직원 30여 명은 이틀간 유기묘·견사 청소와 용품 정리, 외부 산책 유기동물과의 교감활동 등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섰다. 시몬스는 이번 유기견 및 유기묘 자원

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몬스와 동물자유연대의 인연은 지난 2024년 4월 시몬스가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N32의 펫 매트리스인 '쫄꼬미'를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쫄꼬미는 국내 유일하게 펫 세이프티(PS) 인증(한국애견협회), 비건 인증(비건표준인증원),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한국표준협회) 등 '3대 펫 안심인증'과 독일 더마 테스트의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한 펫 매트리스다. /김승호 기자

## GS리테일, 해양 생태계 보호 앞장

양양 기사문·남애리 일대 정화 활동

GS리테일이 지난 15~16일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 해변과 남애리 일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 GS리테

일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연중 전개하는 '바다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윤석 GS리테일 경영지원본부장과 강원도지역 GS25 임직원을 비롯해 해양 NGO 단체 등 39명이 참여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처벌기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판단기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대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한 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 이었던 점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고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측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일부 판례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포용금융의 비용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법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언급하면서다.

실제 은행의 역할은 이미 어느 정도 나누어 있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출범 초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부여받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힘썼다.

반면 시중은행은 기업금융과 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속에서도 기업대출 공급 역할까지 요구받

으면서 건전성과 정책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 결국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빈틈을 메워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책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연체율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건전성 지표 악화를 경계하는 정책 방향이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지만, 정장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와 책임 문제, 건전성 기준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단순히 '신용평가를 혁신하자'는 구호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업권에 역할을 더 요구하는 데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혀왔고, 각자 다른 위험을 감당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은행이 더 '착한 역할'을 했는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다.

포용금융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것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위험은 금융회사에 맡긴 채 정책 목표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현장도, 정책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yu115@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 소** 49년생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을 사귀면 길합니다. 61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3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 호랑이** 50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62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74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86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토끼** 51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주위를 살피고 매사에 항상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75년생 사치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87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말** 52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6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7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88년생 많은 것을 기대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뱀**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 말** 54년생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6년생 잠시나마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지금처럼 가면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9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 양**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세요. 67년생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오늘을 길합니다. 68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맑게하세요. 80년생 마음이 다소 흔들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 닭** 57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81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93년생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 개** 58년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70년생 모든 것이 잘 풀려 즐거운 하루입니다. 82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4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 돼지** 59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7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83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95년생 인연과 절교 사건이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트럼프는

올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마디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직후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일본과 동맹국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통상적인 외교 무대의 원론적 답변을 예상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답변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트럼프는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원했다. 일본보다 서프라이즈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일본 총리에게 "왜 당신들은 진주만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농담 같은 반문을 한 것이다. 충격적인 화법은 순식간에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절대 말하지 않던 진주만 공습을 꺼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우연일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화법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파장을 일으킨 트럼프의 발언 뒤에는 계산된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군사 작전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동맹국의 불만을 단번에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과거 일본의 기습을 끌어와서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기습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순식간에 논점을 바꾸어 버렸다. 파격적인 발언은 트럼프 화법의 핵심이다. 외교 무대에서도 트럼프는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밝힌다. 몇 마디 말로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며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곤 한다. 트럼프 화법은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깨트리면서 국익을 최대한 쟁긴다. 일부에서는 실언 또는 무례함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전략적 선택이다. 메시지를 담아서 핵심만을 찌르고 들어가는 말, 흥내 내기 어려운 트럼프만의 화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5	1		4			8	6
8			6	5			
							9
	2		5	8	4		
9	7		3	5	1		6
			2	9	8		5
1							
			4	1			8
3	9			7		2	5

9	4					7	2
1	5			3			9
			9		4		8
		2		4		9	
	8		1	3		6	
		6		7	5		
4			5		6		
	2			5			4
7	3					6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지역의사제 571명 수시 선발... 97.5%가 '수능최저' 요구

수시 571명 중 미적용은 14명뿐  
내신·수능 동시 관리 구조 지적  
종로학원 "N수생 유입 가능성 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 31개대 수시 수능 최저적용 상황〉 /종로학원

지역	권역	대학수	수시전체 선발인원	최저 적용		최저 미적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방	경인	경인 계	4	27	23	85.2%	4	14.8%
		강원	4	79	79	100%	0	0.0%
		대구경북	5	90	90	100%	0	0.0%
		부울경	6	121	121	100%	0	0.0%
		호남권	4	98	98	100%	0	0.0%
		충청권	7	132	124	93.9%	8	6.1%
		제주	1	24	22	91.7%	2	8.3%
	지방 계	27	544	534	98.2%	10	1.8%	
	계	31	571	557	97.5%	14	2.5%	

이 가운데 수시 선발 인원 571명 중 557명(97.5%)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14명(2.5%)에 그쳤다. 수능최저 미적용 전형은 성균관대 성균

인재(지역인재) 4명, 건양대 지역의사전형 8명, 제주대 지역의사(종합) 2명이다. 제주대도 교과전형 22명에는 수능최저를 적용해 사실상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성균관대와 건양대뿐이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4개 대학, 대구 경북권 5개 대학,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호남권 4개 대학은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 전원이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충청권 7개 대학은 수시 선발 132명 중 124명(93.9%), 제주권은 24명 중 22명(91.7%), 경인권은 27명 중 23명(85.2%)이 수능최저 적용 대상이다.

수능최저 기준도 높은 수준이다. 가천대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합 4를 적용한다. 인하대·한림대·경북대·울산대·순천향대는 3개 영역 등급합 5 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울산대는 한국사 4등급 조건도 함께 반영한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는 전형이지만, 수시 대 부분에 높은 수능최저가 붙으면서 현역 학생에게도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온다.

지역학생 선발 규모 확대도 지방 의대 지원 경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등 지역학생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1698명, 2028학년도 18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권 고교 간 의대 합격자 배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입시에서는 내신과 수능 부담이 동시에 큰 구조로 설계됐다"며 "수시 선발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수능최저 적용 비율도 높아 학교 내신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반수생 등 N수생이 상당수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교사 마음건강 챙긴다

유·초등, 매일 'Cheer-up Day' 운영  
중등, 직위별 강의·체험형 등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교육과정 선택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유·초·중등 교원 5000명을 대상으로 '2026 회복력 지원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연수원은 올해 교육 현장 설문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 유형을 늘리고 연수 인원도 확대했다. 유·초등 교원 대상 연수는 명사 특강, 시리즈 강의, 체험·실습, 워크숍, 속삭형 연수 등으로 운영된다. 매일 마지막 수요일은 유·초등 교원을 위한 'Cheer-up Day'로 정해 소통과 공감 중심의 강의와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중등 교원 대상 연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직위별로 나눠 강의형, 체험형, 속

박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중등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마련해 학교가 연수원 인력풀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원은 강사 섭외, 일정 조정,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교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교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시교육연수원 무면관에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특임교수가 '교원의 자기돌봄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박숙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협력적·회복적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땡겨요서 지역화폐 쓰면 최대 40% 할인"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혜택 연계  
포장·브랜드 할인쿠폰 중복 가능



서울시가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맞춰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화폐로 배달 주문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의 외식·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서울배달+땡겨요 할인 혜택과 연계해 운영한다.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되고,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 수준의 공공 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엔 발행한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의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5월 31일까지 '무한리필 오

천가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서울사랑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는 매주 월·화요일 2만원 이상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선할인(10%), 페이백(5%), 5000원 할인쿠폰을 함께 적용하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할인과 브랜드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할인은 더 커질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성남시, 유희부지 3곳 복합개발 본격화

도서관·수영장·청소년시설 조성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성남시 유희부지 3곳이 도서관과 수영장, 청소년시설 등을 갖춘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성남시는 위례와 판교, 삼평동 일대 장기 미활용 부지를 시민 편의시설 중심의 복합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은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와 판교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삼평중학교 인근 부지 등 3곳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삼평동 부지다. 이곳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

반을 확보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과 수영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총사업비 절반 수준인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위례 지역 개발도 순항 중이다. 위례스토리박스 부지는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주요 행정 심의를 최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청소년 활동 공간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평택시, GRDP 41.8조 경기도 경제규모 3위

평택시가 2023년 지역내총생산에서 경기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평택시는 2023년 명목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41조 84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9483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도내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평택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자체는 화성시(90조 9678억원)와 성남시(59조 5691억원)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를 합산한 지표다. 도시의 경제 구조와 규모를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5월 18일 (월)  
음력: 4월 2일

수도권 날씨  
16~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3/29, 동두천 14/30, 가평 13/31, 파주 12/29, 서울 16/30, 양평 15/32, 수원 15/30, 용인 15/30, 평택 13/30, 안성 15/28, 백령도 13/21

해돋이 / 05:21 | 해질 / 19:3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日, 동남아 8국과 위성정보 공유...선박 감시 정보 공유” /사진 뉴스스  
▲중동전장 발 공군방 불안...韓, G20서 국제공조 촉구

▲“이란, 호르무즈 통제 유지...유럽도 협상” 이란 국영 방송  
▲구윤철, 런던서 한국 투자설명회...G7서 ‘중동 전쟁 공동대응’ 강조

▲대만 난터우현 동북동쪽서 규모 5.1 지진...피해·부상자 없어  
▲가축전염병 청정지위 지킨다...정부, WOHAT 총회 참석



올리브영  
3개 분기 연속  
매출 1.5조 달성  
니



Life

국내 면세점  
개별 관광객 전략  
실적 살렸다  
L2



# 세계 정상 선 '천만뷰' 태권소년... 자유폼새 대명사 꿈꾼다

## 새벽을 여는 사람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변재영 선수

한 소년이 홍콩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공중을 가르며 몸을 던졌고, 음악 위에서 절도 있는 발차기가 섬 없이 이어졌다. 회전과 도약, 고난도 기술이 맞물린 자유폼새 무대가 끝나자 객석의 시선도 함께 멈췄다. 경기 영상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가며 '천만뷰'를 넘어섰다. 2024년 홍콩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자유폼새 17세 이하 개인전 우승자 변재영 선수 이야기다. 온라인에서는 '역대급 태권신동', '각성한 K-중딩', '힘든 시기에 국뽕이 차오른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변 선수는 영화 위대한 쇼맨 OST를 편곡한 음악에 공중돌기 중 8번의 발차기 기술 등 다양한 동작을 구성했다. 특히 변 선수의 주특기인 '아크로바틱' 기술을 선보이면서 특별한 재능을 뽐냈다.

세계 정상에 선 열일곱 소년은 그 순간을 "기쁘면서도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 '내가 나라를 대표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빛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 ◆홍콩서 태극기 든 열일곱... "한국을 빛내줘서 고맙다"

홍콩 세계선수권 우승은 변 선수에게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였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태극기를 달고 무대에 올랐고, 결국 세계 정상에 섰기 때문이다. 우승 후 태극기를 들었던 순간을 묻자 그는 "기쁘기도 했는데 부담감도 공존했다. 태권도 자체가 한국 문화라는 생각이 강해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승 직후 밀려온 감정은 '행복'이었다고 했다. "제가 나라를 빛냈다는 느낌도 들었고, 태극기를 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세계선수권 경기 영상이 '천만뷰'를 넘기며 예상치 못한 유명세도 찾아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을 묻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빛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 한국을 대표했던 만큼 인정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다.

변 선수의 태권도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유독 좋아했던 아이였고, 초



변재영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수. /업비트

홍콩 세계태권도품새대회 정상 올라 경기영상 SNS·유튜브 타고 천만뷰 돌파 다문화가정 부담 딛고 태극기 들어 행복

우연히 본 격파영상에 국가대표 꿈 키워 터치 스와이프 등 고난도 기술로 승부수 화려함보다 무대 즐기는 태도 '필살기'

선수생활 초기, 착지 실수로 어려움 겪어 부상 극복하고, 성적으로 증명하고 고파

대중적인 종목 아니지만 매력 보여줄 것 이름 붙일 수 있는 기술 만드는 것 '목표'

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태권도장을 찾았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았지만, 변 선수에게엔 발차기가 더 큰 재미였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우연히 본 격파 영상이었다. 공중에서 몸을 날리며 기술을 구사하는 장면은 어린 변재영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변 선수는 "그 영상을 본 시기부터 태권도가 너무 진지하게 좋아지게 됐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나라를 대표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품었다.

### ◆'터치 스와이프' 승부수... "긴장보다 기대가 더 컸다"

변 선수의 자유폼새는 유독 과감하다. 두 번째 나간 자유폼새 국가대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변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공식 대회에서 보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인 '터치 스와이프'와 '게이너 스와이프'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물론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처음엔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나만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생각하면서 연습에 집중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늘 경기 장면을 그렸다고 했다. 변 선수는 "경기장에서 저만 그 기술을 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최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코치님들이 항상 '너밖에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해 주셨다. 그래서 긴장보다 기대가 훨씬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즐기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변 선수는 완벽하게 태권도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본인이 꼽는 필살기도 화려한 기술이 아닌 무대를 즐기는 태도다. 그는 "특별히 엄청 잘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신 무대를 즐기는 게 제 필살기"라고 웃었다.

화려한 경기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도 있었다. 그 시절 변 선수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아파도 참고 해라'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변 선수는 2024년 홍콩 세계품새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던 시기를 선수 생활 중



tvN '유퀴즈'에 출연한 변재영 선수. /tvN

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오직 '국가대표 되기만 믿자'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한다. 변 선수는 "큰 부상은 쉬었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잔부상은 계속 참고 운동해야 하잖아요"라며 준비하면서 잔부상이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선수 생활 초기, 첫 대회에서 4등을 한 뒤 다음 대회에서 준비하던 중 몸을 풀다가 착지 실수로 탈구를 겪었다. 그는 "그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부모님도 다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변 선수는 경기 포기 각서를 제출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만의 부담 해결 방법은 결과다.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에서 1등에 이름을 올리면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법도 결국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 ◆"자유폼새 하면 변재영"...소년의 꿈은 아직 진행 중

"자유폼새가 대중화된다면 피겨 하면 김연아, 축구 하면 손흥민처럼 자유폼새 하면 변재영이 나오는 미래가 오면 좋겠다."

자유폼새는 아직 대중적인 종목이 아니다. 변 선수 역시 은퇴 전까지 완전한 대중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다만 꿈은 분명했다.

그는 "겨루기처럼 싸움 개념의 태권도가 아닌 다른 태권도의 매력을 보여 주고 싶다"며 사람들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터치다운 라이즈'라는 기술은 꼭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는 기술로 만들고 싶다는 그다.

홍콩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열일곱 소년은 이제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자유폼새라는 종목의 가능성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자유폼새를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변재영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순간이 올까. 변재영 선수는 오늘도 그 순간을 위해 태극기를 등에 지고, 누구보다 높이 뛰어오르고 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7세 이하 남자 프리스타일 우승자 변재영 선수의 경기 모습. /세계태권도연맹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UFC 최두호, 1년5개월 만의 복귀전서 '코리안 킬러' 산토스에 TKO승  
▲이승민, G4D 오픈 첫 출전에 우승...장애인 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 /사진 뉴시스

▲"떠날 때가 됐다"...레반도프스키, 올 시즌 끝으로 바르사와 작별  
▲"선수·팬 모두 위험"...월드컵 앞두고 제기된 '열사병 주의보'

▲호날두, ACL2 결승전 패배 후 은메달 시상식 '노쇼'  
▲방탄소년단, 월드컵 하프타임 쇼 첫 헤드라이너...다음 종착지는 '슈퍼볼' 될까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입니다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b KB금융그룹**